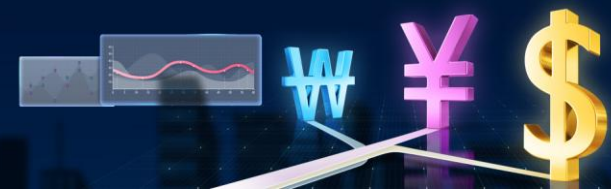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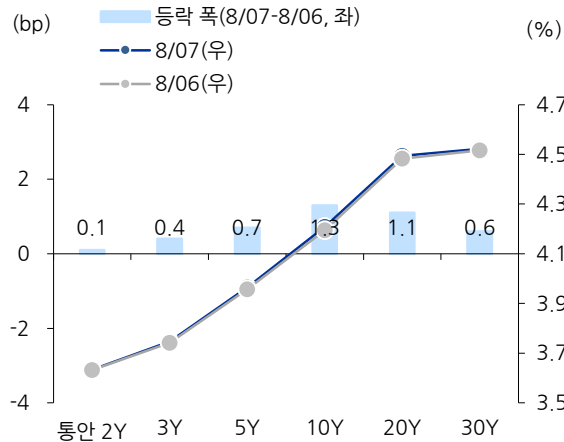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	8/7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746%	0.4	-1.2	79.3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208%	1.3	-5.3	82.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6.2	45.3	50.3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3.39	0.0	16.0	-205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06.34	-20.0	52.0	-658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198%	-5.2	-9.5	72.6
	미국채 10년물	4.647%	-3.3	-9.0	47.9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45.0	43.0	44.5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144%	-1.2	-8.1	28.9
	호주국채 10년물	4.983%	6.0	-1.3	23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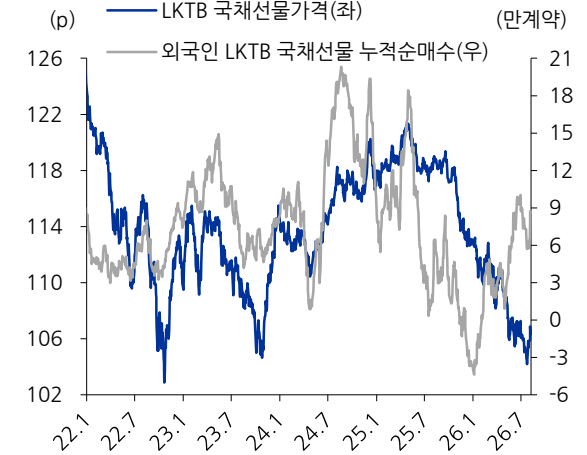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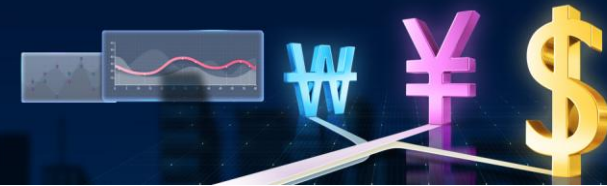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약보합 마감.
- 전일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시장 약세 등에 연동되며 금리 상승 출발. 케빈 워시 의장이 9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외신 보도에도 영향을 받으며 금리 상승 압력 지속.
- 장중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확대 및 원/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금리 상승폭 일부 반납했음. 특별한 국내 재료 없는 가운데 외국인 매매에 연동되는 모습이 계속 됨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불 스티프닝 마감. 고용 쇼크 영향.
- 7월 비농업 고용 발표 이후 전구간 급락. 전월대비 2.3만명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8만명 증가를 크게 하회하며 쇼크로 확인. 실업률은 0.1%p 하락한 4.1% 기록. 예상치 못한 결과에 9월 인상 가능성 하락하며 단기금리 하락폭 확대.
- 장기물, 실업률 하락 및 최근 기타 고용지표 안정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상대적으로 하락폭 제한적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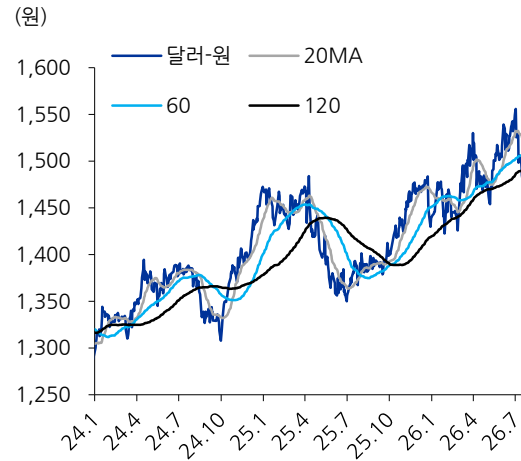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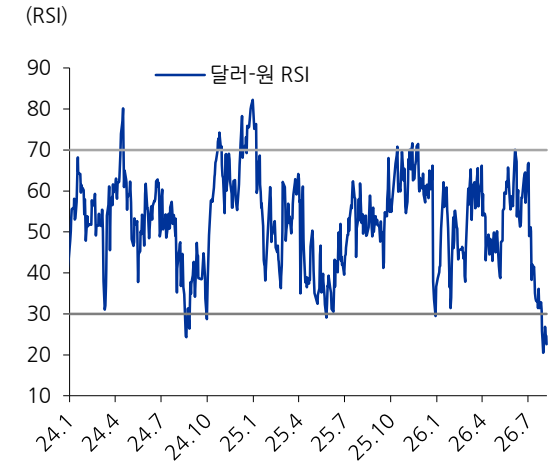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8/7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16.10	-0.5%	-0.6%	-1.6%
	달러지수	99.61	-0.3%	-0.2%	1.3%
	달러/유로	1.16	0.3%	0.3%	-1.6%
	위안/달러(역외)	6.74	-0.1%	-0.1%	-3.4%
	엔/달러	157.82	-0.4%	0.3%	0.8%
	달러/파운드	1.35	0.3%	0.1%	0.2%
	헤알/달러	5.08	-0.6%	0.1%	-7.9%
상품	WTI 근월물(\$)	78.18	1.2%	-7.7%	36.2%
	금 현물(\$)	4,342.45	2.4%	7.3%	0.6%
	비트코인(\$)	65,075	0.7%	3.9%	-26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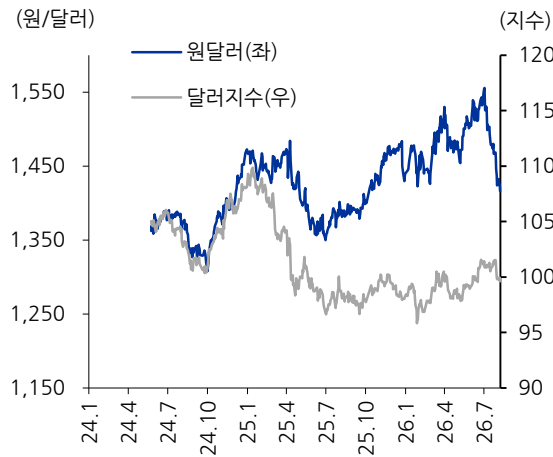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美 고용지표 경계에도 하락 우위 수급에 7.70원 하락한 1,416.10원 마감(야간 1,408.50원).
- 이란의 적대국 선박 호르무즈 해협 통행 금지 검토 소식에 중동 불확실성 지속됐고, 美 7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아시아장 달러 변화 제한됐으나 SK 하이닉스 등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가 원달러 환율 하락을 주도.
- 달러-원 환율은 한-미-일 환시 개입 경계와 수출업체 달러 매도 우위 수급 속 주간 -5.5원 하락.
- 달러-원은 美 고용 쇼크로 야간거래에서 1,400원대까지 하락(-7.60원). 단기적으로 한국 수출기업의 환전 수요가 원달러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가운데, 美 7월 CPI(8/12일) 결과와 엔화 약세에 대한 BoJ의 추가 대응에 따라 달러-원 추가 하락 여부 결정될 전망이다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美 7월 고용지표 부진에 연준 금리인상 기대 축소되며 하락(DXY -0.3%).
- 美 7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신규 고용은 -2.3만 건 감소로 예상(+8.3만 건)을 큰 폭 하회. 5~6월 일자리 수도 -10.3만 건 하향 조정됨. 이에 美 국채는 단기물 중심 강세 보였고 달러인덱스는 하락.
- 한편,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예상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소식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유가는 소폭 상승(WTI +1.2%), 중동 불확실성 지속됨.
- 달러인덱스는 부진한 고용지표로 주간 -0.2% 하락. 시장이 반영하는 9월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은 44%로 전주(67%) 대비 낮아짐(8/8 기준). 금주 CPI, PPI 등 美 물가지표에 따라 추가로 변동성 보일 것으로 예상.